

박범순

12

도망칠 수 없는 시대의 난민,
인류세 난민



세계적 문호 아미타브 고시(Amitav Ghosh)의 에세이 『거대한 교란: 기후변화와 상상할 수 없는 것』(*The Great Derangement: Climate Change and the Unthinkable*)은 작가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¹ 지금은 방글라데시의 영토인 파드마 강 기슭에 살던 그의 조상은 1850년대 중반 어느 날 폭우가 내려 강이 갑자기 흐름을 바꿔 마을 전체를 삼켜버리자, 간신히 살아남아 모든 것을 버리고 서쪽으로 수년간 이동하여 강의 상류에 해당하는 갠지스 강 유역의 한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요즘 용어로 ‘생태적 난민’(ecological refugee)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이야기를 가족과 함께 증기선을 타고 파드마 강을 여행하던 중에 아버지에게서 들었는데, 그 이후 본인의 어린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마치 강이 살아 있는 것처럼 짚어보며 “나를 알아보겠니, 네가 어디에 있든지?”(Do you recognize me, wherever you are?)라고 말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알아보다’, 영어로 ‘recognize’라는 동사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 알아보는 데에는 새로운 발견이나 깊은 이해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말도 필요 없다. 영어의 첫음절 ‘re’가 잘 나타내듯이, 이전에 알고 있던 것, 마음속 어딘가에 잠재되어 있던 것,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느끼지 못하던 것을 재발견하는 과정이다.

고시는 졸지에 집과 이웃을 잃은 그날 조상이 재발견한 것은 바로 강의 현존이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삶의 일부였던 물이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깨달음이다. 사실 공기도 그럴 수 있다. 1988년 아프리카 나이오스 호에

서는 수십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분출되어 그 지역 주민 천여 명과 셀 수 없이 많은 가축이 죽었다. 또한 이처럼 급격하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뉴델리와 베이징 주민들은 허파와 코에 염증이 생겨 병원을 찾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속 미세먼지의 현존을 느낀다. 이러한 사례에서, 고시는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들, 즉 ‘비인간 현존물’(nonhuman presence)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인간의 사고와 삶의 행로에 “상상할 수 없는”(unthinkable) 방식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²

기후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문화의 위기다

비인간 현존물이 인간의 사고와 삶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물질세계와 정신세계, 자연과 문화, 비인간과 인간을 나누는 데카르트식의 이분법적 사고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근대성’(modernity) 역시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근대성 개념이 담보하고 있는 진보와 자유, 합리성 같은 가치도 좀 더 비판적인 시각에서 봐야 할 것이다. 누구를 위한 진보와 자유와 합리성인지, 누구의 희생에 가능한 것인지, 비인간 현존물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문학가로서 고시는 역사와 철학의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사람들이 비인간 물질의 행위성(agency)에 둔감한지 질문을 던진다.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진 후에야 “전례 없는”(unprecedented), “사실 같지 않은”(improbable), “이상하고 묘한”(uncanny)과 같은 표현을 동원하여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지

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의 징후는 쌓여가는데, 아직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왜 이것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지 못할까?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가 부족해서일까? 인문사회과학적 연구가 뒷받침하지 못해서일까? 고시는 이를 문화의 문제로 본다. 한마디로, “기후위기는 문화의 위기이기도 하며, 따라서 상상의 위기”라는 것이다.³

기후위기는 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일까? 기후 분야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 방대한 전 지구적 데이터에 기반해 기후변화는 일어나고 있고 인간의 활동이 주요인이며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무관심할까? 왜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까? 얼마 전 필자가 있는 인류세 연구센터에서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란 주제의 콜로키움이 열렸는데, 거기서의 한 장면이 이를 잘 보여준다. 초대된 연사는 오랜 세월 에너지와 기후 정책을 연구하며 환경운동을 해온 사람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진단하고 에너지 전환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를 조목조목 자세하게 설명해주었다.⁴ 연사의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한 학생이 일어나 지금이 왜 위기 상황인지 솔직히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요점은 태풍 피해와 같은 기후 관련 재난은 예전에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기후위기를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되는 이미지는 녹아 내리는 얼음 위에 올라가기 위해 바둥거리는 북극곰 사진이다. 이와 함께, 지구상의 주요 도시가 물에 잠긴 상황을 상상한 이미지, 예컨대 물에 빠진 뉴욕 빌딩과 자유의 여신상 그림이 쓰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는 기후위기의 실

체를 잘 전달해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기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을 제대로 상상하기 위해선 고시처럼 본인이 생태적 난민의 후손이라는 자각이 있거나, 자연의 현존을 직접 경험하거나(이를 정동[靜動] 또는 감응[感應], 영어로는 ‘affection’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의 경험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으로서의 사람이든 개인으로서의 사람이든 간에, 사람이 포함된 이야기만이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

천재와 인재가 뒤엉킨 사회적 대재난의 시대

기후위기는 이처럼 북극곰에게나 일어나는 저 먼 곳의 재난처럼 여겨지지만, 이미 자연 재난을 넘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재난으로서 우리 목전에 와 있다. 2005년 8월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뉴올리언스를 강타하여 발생한 재난을 살펴보면, 기후위기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상상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미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을 법한 이 사건은, 시의 80퍼센트가 물에 잠기고, 2만여 명의 주민이 실종되고, 확인된 사망자만 2천 명이 넘는 대형 자연 재난이면서, 인명·재산피해가 흑인에 집중되어 인종 갈등을 일으킨 사회 재난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재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논란의 핵심은 복구 정책에 있는데, 허리케인을 피해 다른 곳에 있던 주민들이 돌아오는 과정에서부터 정책의 혼선이 빚어졌다. 하루아침에 난민이 된 주민들은 수 주 동안 집이 어떤 상태인지, 언제 돌아갈 수 있는지,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조차도 모르는 채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그들은 새집증후군의 주 원인으로 알려진 포름알데하이드가 남아 있는 이동식 임시 주택에 장기간 거주해야 했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리 기업에 맡겨졌다고 하는 복구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금을 받으려고 3년 이상 기다려야 했다. 또한 그들은 허리케인 피해를 거의 받지 않은 공공 자선 병원이 문을 다시 열지 않는 것에 의아해했으며, 손상된 집에 거주하거나 재건축할 권리가 주민에게 있는지에 대한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아파트에 살았으며 대부분 흑인이었던 4,500가구의 주민들은 건물 철거 결정에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몇 년이 지난 후 뉴올리언스 시의 백인 인구는 거의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는데, 흑인 인구는 십만 명 정도 줄었다. 뉴올리언스 주민들은 허리케인이 닥친 순간보다도, 그 이후에 겪은 일들을 더 뼈아프게 기억하고 있었다.⁵ 도시가 물에 잠긴 것은 허리케인 때문이라기보다는 제방을 쌓고 이를 관리해온 미국 공병단의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주민들 사이엔 이미 팽배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통해 더 확신하게 되었다. 즉 그들에게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난은 천재(天災)라기보다는 인재에 더 가까웠다. 이처럼 오늘날 인간이 겪는 재난은 정치적이다. 바람과 폭우가 인종차별적이고 빈부 격차를 인지할 리 만무하지만, 가난하고, 차별받고, 힘없는 사람들의 피해와 고통이 항상 크고 오래간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휩쓸고 갔을 때, 이를 기후변화의 결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다른 어떤 곳

보다도 뉴올리언스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변화를 가장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공병단은 지구 해수면 상승 때문에 루이지애나 주가 가라앉고 있어서 뉴올리언스 지역 인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고, 2023년에 이르러서는 현재의 제방이 소위 ‘100년 빈도의 홍수’(특정 연도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1퍼센트 미만이거나 100년마다 한 번이라는 재현 기간을 갖는 홍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발표를 해서 많은 사람을 걱정케 했다. 만약 뉴올리언스가 이 100년 빈도의 홍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보험에 들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민은 비싼 개인 보험을 들거나 아무런 보험 없이 살아야 하고, 집값은 내려가는데 팔기도 힘든 상황에 이를 것이다. 결국 도시가 물에 다시 잠기기 이전에 주민들은 경제적 파탄에 빠질 수 있다. 그만큼 연방정부 보험 프로그램 가입조건 충족이 중요했다.

애초에 이런 염려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카트리나 재난 이후 제방을 더 높이 튼튼하게, 즉 400년 홍수 빈도의 기준으로 개축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조언이 있었지만, 막대한 비용을 부담스러워한 당시 부시 대통령 정부의 반대로 성사가 되지 않았다. 대신, 부시 정부는 100년 홍수 빈도 기준을 유지하되 연방정부 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겠다는 안을 내세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주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른바 “악마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기후변화에 대응을 잘하지 못하게 했다.”⁶

뉴올리언스 주민들은 카트리나와 같은 큰 규모의 허리케인이 다시 찾아올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이 지구온난화에

의해 촉발된 것이든 아니든, 주민들은 시가지가 물에 잠기고 사망자가 나오고 그 이후 복구하는 과정이 철저히 정치적인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허리케인을 알아보는(recognize) 방식이다. 생태적 난민의 길을 떠난 고시의 조상과는 달리, 그들은 재난에서 자연의 힘만이 아니라 인간사회의 문제를 본다. 그들에게 기후위기는 정치 위기와 떼어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도망칠 수 없는 난민, '인류세 난민'

‘인류세’ 개념은 인간의 활동으로 지구 시스템에 큰 변화가 일어나 지질학적 시대 구분을 새로 해야 할 정도임을 나타내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21세기 재난에 관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제 허리케인, 폭우, 산불은 인간이 배제된 순수한 ‘자연 현상’으로 보기 힘들다. 즉 물, 공기, 풀, 나무 등의 물질뿐만 아니라 제방, 댐, 빌딩, 공장, 도로 등의 인공물과 매개하여 나타나는 매우 복합적인 현상인 것이다. 재난의 발생 자체만이 아니라 사회가 재난에 대응하는 방식과 복구 과정 또한 재난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할 것이다. 이때 인류세 개념은 비인간 현존물의 행위성을 받아들이고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 사이의 네트워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시 말해, 인류세 논의는 단순히 손상된 지구 시스템을 어떻게 고쳐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그치지 않고, 인간 자신과 주변을 새롭게 인식하는 사고 전환을 요구한다.

기후위기가 인류세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면, 이 위기를 이미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경험할 수도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새로운 용어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생태

적 난민과 달리 인류세의 난민에게는 ‘이동성’(mobility)이 반드시 보장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고시가 자신의 조상을 언급할 때 사용한 ‘생태적 난민’이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후 난민’(climate refugee)과 같은 표현은 재난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이동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⁷ 그러나 과연 21세기 지역 간, 국가 간 정치경제 관계 속에서 기후위기 난민에게도 이동성이 담보될 것인가? 북극의 얼음이 녹아 주요 도시가 물에 잠기고 시베리아와 캐나다의 동토가 녹으면, 새롭게 경작 가능한 지역을 찾아 고지대로 또는 국경을 넘어 이주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인류세 시대에 볼 수 있는 난민을 가리키고자 ‘인류세 난민’(Anthropocene refugee)이라는 용어를 제안한다. 이는 지역적 이동성이 상당히 제한된 피난자, 그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재난과 위협을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사람을 뜻한다. 좀 더 범주를 넓혀 행성적 차원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 인류는 모두 지구에 갇힌 ‘인류세 난민’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기후위기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인류세 난민을 상상하면 된다. 이런 난민은 이미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 사례1: 우리는 스스로 만든 재난의 피해자다

올해 여름과 가을 몇 달 동안 아마존 지역에 불이 나서 큰 논쟁거리가 되었다. 지구의 허파라는 별명을 가진 아마존의 열대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뿜어내기에 지구온난화의 관점에서는 단순히 브라질이라는 한 국가의 문

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마존의 화재는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열대우림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농작물 경작지를 확보하고 가축 방목지를 개발할 목적으로 불을 낸 것이다. 즉, 화전(火田)이다. 올해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매년 이맘때쯤 남반구에 봄이 오기 전에 늘 하던 일이었다. 그런데 왜 올해 갑자기 화전 문제가 쟁점이 되었을까? 브라질의 경제 구조는 전통적으로 원자재와 농산물 수출에 의존해왔다. 이에 2000년 이래 2014년까지 기계화된 대량 작물 재배를 할 수 있는 경작지 면적은 거의 두 배로 늘었다. 열대우림 벌채 면적과 화전의 횟수는 정점에 달했던 2004~2005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올해 다시 많이 늘어났다. 경제 개발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그는 환경 관리 예산을 대폭 줄이고, 화전 일구기 같은 위법 행위를 감시할 공무원들을 해고했으며, 환경 범칙금을 줄이거나 탕감해주는 정책을 폈다. 경제를 활성화해서 12퍼센트에 이르는 높은 실업률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마침 중국과 미국 사이에 벌어진 무역 전쟁으로 중국에 콩을 대량 수출할 기회가 보이자, 늘어나는 화전을 수수방관한 것이다.⁸

이렇듯 아마존의 화재는 다분히 지역 주민의 경제 활동의 한 부분이자 국가 정책의 결과이다. 불을 피해 떠나는 생태적 난민은 없다. 희뿌연 연기가 지역을 뒤덮어도 주민은 남는다. 이미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로 알려진 브라질에서, 그 배출량의 46퍼센트가 화전에서 나올 정도로 심각해도, 사람들은 거기에 산다. 그들에겐 기후위기보다 경제 위기가 먼저다. 아마존 화재로 인한 지구 대기 오염과

그로 인한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외부에 있다. 세계 선진국들의 모임인 G7에서 화재 관리를 위해 2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몇 개의 선진국이 다른 나라의 경제 활동에 이런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이 옳을까? 게다가 이들 국가는 알래스카 산림의 벌채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려고 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선 아무런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중성은 비판받을 만하다.⁹

비슷한 시기에 몇 달 동안 계속된 캘리포니아의 산불은 다른 측면에서 시사점을 던져준다. 화재의 원인은 다양하다. 산불이 나자 곧 그 지역의 전기회사가 단전 조치를 한 것을 보면 송전 시스템에서 발생한 스파크가 원인일 수 있다. 누군가가 방화했을 수도 있고, 캠핑하다가 부주의하게 버린 담배꽂초나 성냥이 원인일 수도 있다. 실제로 한 연구에 의하면, 수풀과 잔디가 있는 지역에서 화재가 시작되어 산으로 번져간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므로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인간의 활동이나 인간이 설치한 사물이 주요 원인임은 틀림없다.¹⁰ 또한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과는 별개로, 산불이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번지는 것을 기후변화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다. 캘리포니아는 수년간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고, 비가 오면 짧은 기간에 폭우의 형태로 와서 산사태가 발생하기 일쑤였으며, 거의 매년 연례행사처럼 바짝 마른 초목과 집을 태우는 대형 산불이 일어났다. 산불 진압에 투입된 소방수들은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곳에서 일을 수행했고, 주민들은 이전 잘 훈련받은 사람들 처럼 소중한 것들을 챙겨 신속히 대피하는 방법을 체득했다.

그들은 기후위기가 이미 집 문 앞에 와 있음을 알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종말”(Californiapocalypse)은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말한다.¹¹

앞서 지적했듯이 오늘날의 재난은 재해 자체만이 아니라 재해를 극복해나가는 사회적 과정까지도 포함한다. 최근 몇 년간 일어난 산불로 캘리포니아 주민 수천 명이 집을 잃었다. 호화 주택이든 이동식 간이 주택이든, 산불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집을 집어삼켰다. 그러나 그 이후 복구 과정에서 계층 간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좋은 보험에 들었던 부자들은 그전보다도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올렸기 때문에, 아예 보험을 들 형편이 못 되거나 조건이 좋지 않은 것을 들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레이크 카운티 지역 주민의 60퍼센트가 이런 상황이었다. 이들 중의 일부는 LA와 같은 대도시로 들어가서 노숙인으로 지내게 되었다.¹² 이 시대의 난민은 이런 모습이다. 이들은 단순히 자연발생한 재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기후위기에 의해, 우리 스스로 재난의 피해자가 되며, 재난을 수습하는 과정에는 복잡한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다.

- 사례2: 국가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 시대의 난민을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보자. 2011년 3월에 일본 후쿠시마현 해안을 휩쓴 쓰나미로 원자력발전소가 파괴되며 시작된 재난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사전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에 따라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자연재해에서 촉발되어 급박히 돌아가는 상황에서 경제적·기술적·사회적 요인들을 모두 고려한 완벽한 답을 제시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여파는 다양한 형태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기억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쓰나미의 무시무시한 힘을 떠올리는 사람, 발전소 폭발로 솟아 오르는 연기를 기억하는 사람, 인간의 접근이 불가능해진 발전소의 주변과 내부에 투입된 로봇의 활약이 인상적이었던 사람, 재난에 침착히 대처하는 주민들의 자세에 감명받은 사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에 이은 제3의 원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탈원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등, 여러 방식으로 그날이 기억되고 논의되고 있다.

발전소가 위치한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곳의 주민은 어떻게 기억할까? 20킬로미터 권역 밖에 있는 이타테 마을에 살던 주민, 토루 안자이의 기억은 조금 다르다.

“안자이 씨는 그날을 ‘흑설(黑雪)로 기억한다. 그는 2011년 3월 12일 폭발음을 들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쪽에서 검은 연기가 올랐다. 철이 타는 냄새가 마을 곳곳에 진동했다. 이내 비가 내렸다. 비는 눈으로 바뀌었다. 눈은 검었다. 난생처음 보는 검은 눈은 안자이 씨를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게 했다. 불길한 예감은 들어맞았다. 검은 눈이 마을에 내린 뒤 안자이 씨는 피부에 찌릿찌릿한 통증을 느꼈다. 해수욕하다 햇볕에 탄 듯

한 느낌이었다. 양다리는 탄 것처럼 까매졌다가 하얗게 벗겨졌다. 약을 발라야 피부가 벗겨지는 걸 막을 수 있었다.”¹³

그 후 안자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온몸으로 겪었다. 두통, 어깨결림, 탈모, 뇌경색, 심근경색이 찾아왔다. 사고 발생 3개월 만에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이주해야 했고, 8년이 지난 후 일본 정부로부터 귀향을 권유받고 있다.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제염 작업을 마쳤으므로 돌아가도 된다는 정부의 안내 속에는,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선전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그는 잘 알고 있다. 귀향, 실제로는 ‘재이주’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이 정책에는 강제적인 요소도 있다. 2019년 3월부터 피난 주민을 위한 가설 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집세 지원을 전면 중단한 것이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귀향을 꺼려, 사고 전 거주한 6,300여 명 중에 돌아간 사람은 300명 정도이고,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인들이다. 그들은 80퍼센트 이상이 산림으로 덮여 있는 마을의 지형 특성상 제염 작업이 쉽지 않고, 따라서 그곳은 안전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실제로 이타테 마을의 방사능 수치는 방사선 노출에 대한 국제 안전 기준치의 100배에 이르는 수준이다.¹⁴

안자이는 증언한다. “아무 잘못 없이 고향에서 쫓겨났다. 괴로웠다. 고향은 오염됐고 목숨을 잃은 주민도 있었다. 정부가 뒤늦게 피난하라고 해서 고향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라고 한다. 방사성 오염이 극심한 곳으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분하다. 정부에 여러 차례 탄원했지만, 정

부는 듣지 않는다. 우리 청원이 국가에 닿지 않는다. 국가는 우릴 버렸다.”¹⁵ 안자이와 같은 후쿠시마 피해 주민은 새로운 형태의 난민, 즉 ‘인류세 난민’이다.

위기에 처한 다음 세대를 구하기 위하여

26

위기(危畿)는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태를 잘 넘기면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뜻으로 종종 해석된다. 영어의 ‘crisis’에도 ‘tipping point’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어느 한순간, 한고비만 잘 넘기면 평온한 상태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인류세 시대의 기후위기를 이렇게 상상하면, 이 위기 역시 질서정연한 하나의 사회질서에 속한 것처럼 보는 근대성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 주위에는 이미 오갈 데 없는 ‘인류세 난민’이 많이 있고, 우리는 여기서 기후위기의 현존을 느껴야 한다. 우리 다음 세대에 인류세 난민이 더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 1** Ghosh, A., *The Great Derangement: Climate Change and the Unthinkabl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6), pp. 3~4.
- 2** 위의 책, pp. 4~5.
- 3** 위의 책, pp. 9~33.
- 4** 한재각,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 콜로키움 (2019. 10. 10).
- 5** Horowitz, A., “Don’t Repeat the Mistakes of the Katrina Recovery”, *New York Times* (Sept. 14, 2017).
- 6** Horowitz, A., “When the Levees Break Again”, *New York Times* (May 31, 2019).
- 7** 기후 난민과 이동성에 관해서는 Baldwin, A., Fröhlich, C. and Rothe, D., “From Climate Migration to Anthropocene Mobilities: Shifting the Debate”, *Mobilities*, 2019, 14(3), pp. 289~297 참고.
- 8** Editorial Board, “Without the Amazon, the Planet Is Doomed”, *The Washington Post* (Aug. 5, 2019); Peçanha, S. and Wallace, T., “Maps of Amazon Fires Show Why We’re Thinking about Them Wrong”, *The Washington Post* (Sept. 5, 2019).
- 9** 위의 기사.
- 10** Wilentz, A., “Can You Still #Resist When Your State’s on Fire? A Postcard from the Californiapocalypse”, *The New York Times* (Nov. 7, 2019).
- 11** Fountain, H., “How Climate Change Could Shift California’s Santa Ana Winds, Fueling Fires”, *The New York Times* (Nov. 5, 2019); Spangle, R., “My Neighborhood Was on Fire. My Neighbors Came Together to Save It”, *The New York Times* (Nov. 6, 2019).
- 12** Fuller, T., Turkewitz, J. and Del Real, J. A., “Despair for Many and Silverlings for Some in California Wildfires”, *The New York Times* (Oct. 31, 2019).
- 13** 이철한, 「후쿠시마 주민 토루 안자이의 비극: ‘국가는 우리를 버렸다」, 한국 그린피스 홈페이지 (2019. 7. 19),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8423/blog-ce-the-tragedy-of-fukushima-residents-anzai> (2019. 11.1 접속).
- 14** 최경숙, 「체르노빌보다 후퇴한 후쿠시마 피난 정책」, 환경운동연합 (2019. 2. 19), <http://kfem.or.kr/?p=197115> (2019. 11. 1 접속).
- 15** 이철한, 앞의 글.

박범순

과학사를 전공하고, KAIST 과학기술 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인류세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